

# G-Welfare Weekly Report

## 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# 공공사업의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'공공성과보상사업 법률(안)' 발의

#### 01 주요 내용

- 최근 채이배 의원\*는 공공성과보상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(안)을 발의
  - 공공성과보상사업은 민간 투자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을 실시한 뒤 사업성과와 연계해 정부가 예산을 집행,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사업 방식을 의미
  - 공공성과보상사업은 기존 복지정책 등의 선 재정투입 방식이 아니라, 정책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
  - 또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
-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
  -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를 두며, 5년마다 공공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(법률안 제4조 및 5조)
  -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으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하고, 창출되는 공공성과가 비용보다 큰 사업을 공공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(법률안 제6조)
  - 공공성과보상사업은 타당성 평가와 공공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계획을 수립(법률안 제7조, 제9조 및 제10조)
  -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성과보상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(법률안 제13조)
  -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독립적인 평가기관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, 이를 토대로 공공성과보상계약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함(법률안 제14조 및 제15조)
-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 법률(안)은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
  -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별로 추진된 사업의 제도적·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,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
  -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, 사회적 가치 실현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분명한 비전 제시와 투자 및 재원의 유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
- 이번 공공성과보상사업 추진 법률(안)은 해당 소관의 심의 및 본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는 단계로 진행될 예정

\*국회 법제사법위원회

#### 02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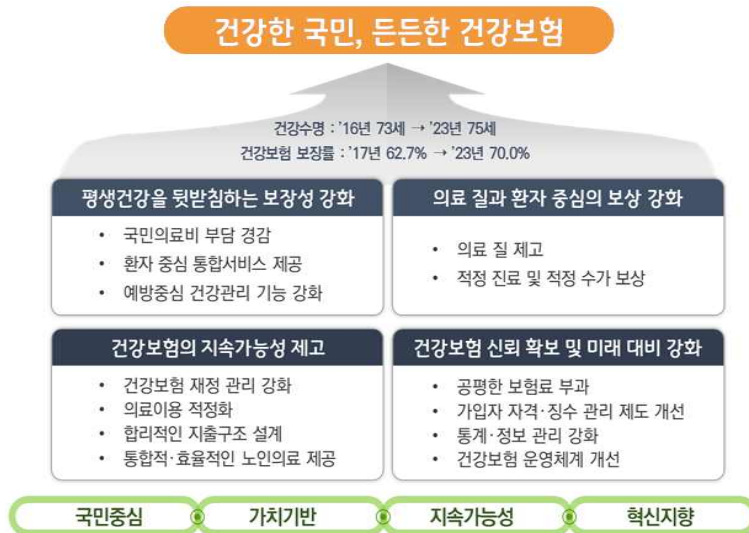
- 경기도는 2015년 해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17년 경력단절여성 예방, 청소년 재범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전국에서 공공성과보상사업(SIB)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
-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와 진행 예정 사업의 추진 체계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

# 01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 보건복지부,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('19~'23년) 수립

### 01 주요 내용

- 보건복지부는 '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(안)'을 발표하고,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
  - 해당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재정전망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
- 추진방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공공체계 구축 등
  - 비급여의 급여화 및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, 어린이, 난임부부, 저소득층 등은 한층 더 두텁게 보장
  -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하고, 방문의료 도입
- 또한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를 운영하고,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
  -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, 교육상담을 활성화하고,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 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
  -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



〈그림〉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(안) 비전 및 체계

-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의 재정소요 규모는 향후 5년('19~'23년) 간 총 41조5800억 원
  - 보험료 인상을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를 인상률 수준(연평균 3.2%) 내에서 인상하고 국고지원금 규모를 매년 확대한다는 계획
-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노인의료비 감면제도인 '노인외래정액제'의 적용 나이를 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혀,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연령에 대한 변화를 예고
  - 노인들은 외래진료비 할인으로, 지난해 4,696억원의 혜택을 봤지만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을 주는 제도로 지목되어 온 것에 따른 것으로,
  - 이 기준을 상향할 경우 각종 복지제도의 해당 연령 기준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저소득 노인의 부담을 우려한 신중론도 제기

# 02 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##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수 사례

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'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의 우수 사례에 대해 살펴봄

- 2018년 기준,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접 사회서비스를 기획 개발하여 제공하는 '지역사회서비스'는 총 400여 개가 제공 중
  - 2018년 주요 이용자는 19세 미만의 아동·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(53.8%), 65세 이상 노인(30.8%), 35세~64세의 청·장년층(9%), 19세~34세의 청년층(2%) 순
- 2018년 성과평가 결과, 우수 광역자치단체(전북, 부산, 광주, 대구, 경북) 선정
  - 청소년 재활승마서비스(전북), 직업능력발달지원서비스(울산) 등

〈표〉 2018년 우수 지역사회서비스 개요

사업명	개요
청소년재활승마 지원서비스 (전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적 : 장애아동 및 ADHD 등 정서불안·장애를 가진 아동·청소년에게 승마를 매개로 한 정서행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, 정서적 기능을 향상</li> <li>•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(장애인은 140%) 가정의 만7세~만18세</li> <li>• 내용 : 심리상담, 교감활동, 재활승마, 집단 상담 및 신체 교정(장애아동)</li> </ul>
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(부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적 :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</li> <li>• 대상 : 소득기준 없음, 만18세 이하</li> <li>• 내용 : 발달지원(발달기초, 언어발달), 문제행동(심리상담, 놀이/언어/음악 등)</li> </ul>
현장체험형 진로 직업교육 서비스(광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적 : 현장직업체험을 통하여 저소득층 아동·청소년의 진로의식개발, 직업 정보 탐색, 진로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지원</li> <li>•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 만 8세~만 16세 이하</li> <li>• 내용 : 직업정보탐색, 진로설계, 현장체험, 재능파머스마켓 등</li> </ul>
직업능력발달 지원서비스 (울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적 : 경력단절 및 구직활동 중인 자, 장애인, 퇴직자 등 직업생활준비(자격증 취득 등),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배양</li> <li>•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, 만 14세~만 64세 이하</li> <li>• 내용 : 직업능력 배양 이론 강좌 및 실습, 직업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</li> </ul>
즐거운 아침 행복한학교 (인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목적 : 아동청소년기의 충분한 신체활동과 균형적 영양제공으로 활발한 신체 및 두뇌활동을 유도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과 자아 존중감 증진</li> <li>• 대상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 만 6세~만 15세 이하</li> <li>• 내용 : 아침 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, 아침영양 제공 등</li> </ul>

- 해당 서비스는 아동과 노인이 전체 이용자의 84%를 차지하는 반면 청년층은 이용률이 2%로 저조한 서비스 사각지대로, 청년층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발굴과 시행이 필요
  -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별개로 올해 광역자치단체별 "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"을 신규 선정하여 신체건강·영양 관련 사회서비스를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

## 2. 재단 주요사업 안내

사업명	주요내용
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평가위원 간담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시/장소 : 2019. 4.19.(금), 14:00~18:00/재단 교육장</li> <li>• 참석대상 : 평가위원 53명(교수9, 현장9,공무원35)</li> <li>• 내용 : 평가지침 안내 및 질의응답, 매너 교육 등</li> <li>• 문의 : 정책연구실 경영전략팀(☎267-9399)</li> </ul>

# 03 FACT CHEC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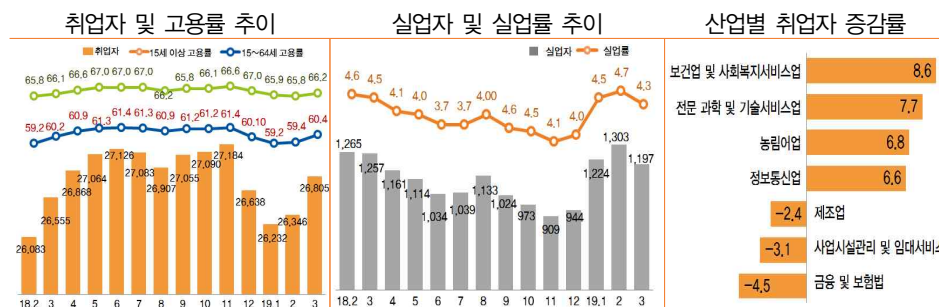
## 한국 사회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?

- 최근 출간된 “대한민국 행복 리포트 2019: ABOUT H”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행복도를 보여주는 ‘안녕지수’는 10점 만점에 5.18점으로 나타남
  - 안녕지수는 스트레스, 불안, 짜증, 평안, 삶의 만족도, 의미 등을 수치화하여 도출한 것으로,
  -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 마음날씨 플랫폼을 통해 지난 1년6개월간 150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
- 연령별 평균 안녕지수에서는 취업과 연애, 결혼 등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2030이 5.06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
  - 안녕지수는 10대(5.75)때 높다가 20~30대에 최저점을 찍은 후 반등하기 시작해 60대 이상(6.03)에서 최고점을 찍는 U자형 패턴을 보임
- 성별로는 여성의 평균 안녕지수는 5.22점(중복응답)으로 남성 평균 5.5점보다 크게 낮음
  -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들은 심리적 부정적인 지표인 불안과 공황장애 등을 동반하는 신경증이 3.40으로, 평균 3.28보다 크게 높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- 거주지에 따른 행복을 비교해보면, 행복도가 가장 높은 거주지 1위는 세종시
  - 세종시는 총점 뿐 아니라 ‘불안,’ ‘평안’ 등 하위 요인들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임
  - 행복 점수가 낮은 지역은 인천과 서울이며, 특히 서울은 ‘불안’과 ‘평안’에서 최하위를 차지
- 기존 연구는 행복 최하위 집단이 40~50대로 나타난 반면, 이번 연구는 20~30대의 행복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여, 청년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

관련보도 : 해럴드경제, 4.9일자 기사

# 04 통계로 보는 복지

## 3월 고용동향



자료: 통계청, 4.10일자 보도자료, 2019년 3월 고용동향.

- 2019년 3월의 취업자는 2,680만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만 명(0.9%) 증가하였으며, 15~64세 고용률은 66.2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상승
  -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명(-4.8%) 감소, 실업률은 4.3%로 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
-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17만 2천명, 8.6%)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8만 3천명, 7.7%), 농림어업(7만 9천명, 6.6%)
  - 반면 제조업,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감소

\* 단위 : 천명, %